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음 2월 17일) 제15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4.13 총선 D-19

이번 총선 전북 정치권 인사들 명운 걸렸다

정동영 후보, 국민의당 입당 당선시 대안세력 중심으로

김춘진 후보, 4선 성공하면 더민주 도당에 새 불씨 될 듯

한병도·조배숙·장세환 후보 총선 승리 후 정계복귀에 사활

올해 제20대 총선은 대부분 전북 정치권 인사들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승부다.

특히 이번 총선은 앞으로 전북 정당 정치 변화를 가르는 심판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몇몇 후보의 경우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행보도 결론 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김제부안), 이춘석(익산 갑), 한병도(익산 을)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당 정동영(전주 병), 유성엽(정읍고창), 조배숙(익산 을), 이한수(익산 갑), 장세환(전주 을), 임정엽(완주진무장) 후보는 총선결과에 따라 정치 운명이 걸려있다.

이 때문인지 총선 가도에 임하는 이들의 심정은 당을 불문하고 그리 편해 보이지 않고 사력을 다하는 중이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5, 16, 18대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의 만만찮은 반격이 그를 괴롭힌다.

승리하면 정권교체의 대안세력 중심으로 부상하겠지만 패배하면 그야말로 '끝'이다.

여기에 정 후보에게 거는 국민의당 기대가 남다르고 다른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쳐 어깨가 무겁다.

독자세력으로 갈 것이란 전망과 달리 국민의당 입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재점화한 그가 전북 정치 영향력과 당내 입지를 넓힐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유성엽 후보 경우에도 정읍고창에서 3선 깃발을 꽂게 되면 입지는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의 맹추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탈당과 함께 입지가 좁아진 그가 지역민들에게 재신임을 받는다면 전북 정치 맹주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는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김춘진 후보도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행로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규성 의원을 따돌리고 단수 공천 돼 이겨야만 될 명분이 충분, 패배한다면 정치 생활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춘진 후보가 4선 고지를 밟으면 단숨에 당내 중진 입지를 다지면서 꺼져가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익산갑의 더민주당의 이춘석 후보와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 역시 정치적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이춘석 후보는 국회의원 재선 현역으로서, 이한수 후보는 익산시장 재선으로서 두 중진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지역 정치와는 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조배숙, 장세환 후보와 더민주당 한병도 후보도 이번 총선 승리가 절박하다.

세명 후보는 정계복귀 리턴매치를 예고하면서 절치부심이다.

이 가운데 한병도 후보는 '돌려막기' 공천이란 흠집을 안고 위기 돌파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반면에 조배숙, 장세환 후보는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올라 일단 합격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는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더 이상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 동안 지역 정치에서 선거때마다 거론 되고 있는 점 등 '단골 후보'라는 낙인 때문에 그 입지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는 패배한다면 정치적 현실에 비추어 재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공천 잡음을 비롯해 이번 국민의당 경선에서도 반발이 많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정가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대부분의 후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거물급 인사들의 경우 정치적 명운 등이 겹치면서 미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 갑), 최형재(전주 을), 김성주(전주 병) 후보는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젊은 전주 세명의 후보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전북지역 총선 후보 10명과 익산시장 후보는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민주 "전북 희망 만들 것"

"정권교체 이루겠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24일 "정권교체와 서민들의 삶을 바꿔내 전북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김윤덕(전주 갑) 최형재(전주 을) 김성주(전주 병)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0년 정통야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젊은 전주의 삼총사가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불가능하다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가능하게 했고 익산국토청의 분할을 막아냈다"면서 "전북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전북정치가 더 당당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도록 혁신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역설했다.

김윤덕 후보는 "국민의당이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 주도세력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야당세를 가지지 못하고 이념적으로도 새누리당과 비슷한 당이 정권교체 주도세력이 되겠느냐"면서 "총선 끝나면 자기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든 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후보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친노패권주의 정당'이라고 지칭한데 대해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박근혜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승리를 통해 내년 정권교체의 발판을 만들자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그런데도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이 '호남정신 부활, 전북정치 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유치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재 후보도 "반칙을 없애고 특권을 청산하는 것이 친노세력이라면 나는 당연히 친노"라면서 "지금 친노패권을 주장하는 국민의당의 몇몇 분들은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고액연금을 받으며 호가호위하던 분들인데 정직하지 못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전주지역 후보들은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책을 가지고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전국에서 치열하게 싸워야지 안방에서 저급한 정치술수는 그만 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국민의당 "전북정치 복원"

"호남정신 부활 힘 모을 것"

국민의당 전북도당 소속 후보자들이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한 전북정치 복원과 호남정신 부활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국민의당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익산시장 후보 등 11명은 24일 전북도의회에서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야권의 주도세력이 교체되지 않고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전북지역의 10개 선거구에서 석권해 전북의 몫을 찾아오는 전북정치 복원과 호남정신을 부활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유성엽 정읍·고창 후보는 "올해 전북은 국가예산을 6조원 수준으로 지키는데 만족한 반면 경북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됐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민생 챙기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당 위원장도 "19대 국회 4년동안 전북에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연대하고 각자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자성을 하게 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전북 목소리 낼 수 있도록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원 당선돼서 제대로 된 팀플레이로 대한민국정치의 중심에 전북정치가 놓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주병 후보는 국제공항과 KTX혁신도시 역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행정만 있고 정치는 없었다"고 선언하고 "앞으로 국민의당은 전국 최강의 전북정치팀을 만들어 전북이익을 가장 앞에 두고 무책임하게 대사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김광수(전주갑), 장세환(전주을), 정동영(전주병), 이한수(익산갑), 조배숙(익산을), 김관영(군산), 유성엽(정읍·고창), 김종회(김제·부안),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임정엽(완주·진안·무주·장수)후보와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특별취재반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6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내일(26일) 오후 3시부터
전주 중부비전센터 5F 비전홀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공동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주시, 동아보건대학교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 주 매 일

▶ 매일 INDEX

4면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임실군청 등 자치단체 10곳을 상대로 이중장부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원예시설업자와 농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24일 전북경찰청은 이들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면 태양의 후예 OST 광풍

신드롬을 일으키며 시청률 30%를 넘긴 송중기 주연의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OST로도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발표된 6곡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성공했다.